

AIDS 예방을 위한 홍보전략

이광영/한국일보 부국장, 독자부장 (과학평론가)

세계적인 공포의 질환 AIDS(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가 알려진지도 10년이 지났다.

미국질병관리센터(CDC)가 1981년부터 정체불명의 이 질환에 대해 추적을 시작, 세계는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AIDS 대책에 나서 이 병의 증상과 전염경로에서 예방법은 물론 WHO를 주축으로 환자의 파악과 국가단위의 관리체계가 확립됐다. 그리고 AIDS를 치료할 의약품개발에 세계가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AIDS 환자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WHO는 1992년 6월 30일 현재 169개국으로부터 보고된 AIDS 환자를 501,296명으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보고된 수치이고 실제 환자는 이보다 훨씬 많아 20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감염자 수는 1,000만~1,2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AIDS 감염자는 2000년께 2,500만~3,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2000년께는 1,000만명에 달하는 유아와 어린이가 AIDS로부터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될 것이란 경고다.

우리나라도 1985년 AIDS 환자가 첫 발견된 후 1992년 10월 31일 현재 감염

자 232명(남 206, 여26)중 환자 10명(사망 9, 생존1)으로 늘어났다.

AIDS가 20세기 인류의 최대 공포의 질환이 되어 있는 것은 환자와 감염자가 이 같이 계속 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AIDS는 일단 걸리면 치료할 길이 없다. AIDS는 암이나 다른 성인병과 달라 조기에 발견해도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AIDS 대책은 HIV에 감염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차단하는 길 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AIDS의 감염경로는 ①감염된 사람과의 성적접촉(동성연애 포함) ②감염된 혈액과 혈액제제 수혈 ③감염된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 등이다. 공기나 물, 음식물, 포옹, 악수, 변기 공동사용 등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따라서 AIDS의 예방은 일견 보기엔 간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AIDS 병원체인 HIV에 감염된 혈액을 완벽하게 찾아낼 수 없는데다 성생활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어 문제가 간단치 않다.

현재 혈액이 HIV에 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항체검사법으로 판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항체검사법으로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기간중의 혈액에 대해서는 AIDS의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 실제로 HIV에 감염되어도 빨라야 3주가 지나서야 혈청검사로 확인이 가능하다. HIV에 감염되어도 평균 3개월, 사람에 따라서는 2년이 되도록 항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IDS는 특히 성적접촉을 통해서 전염된다는데 예방의 어려움이 많다. 현대 생활에서 성생활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성도덕은 서구에 비해 보수적이긴 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도 성도덕이 서구화 되면서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성교육은 보잘것이 없다. 성도덕이 속으로 썩어가고 있는데 보기 흉하다 해서 그저 보자기로 덮어둔 꼴이다.

우리는 AIDS 예방대책을 세움에 있어 이같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AIDS 대책에 있어 홍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AIDS는 일단 걸리면 치료할 수 없지만 AIDS의 정체와 전염경로 예방방법 등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IDS 예방을 위한 홍보전략은 AIDS의 정체와 전염경로에서 예방방법을 정확히 알려주는 동시에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 주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AIDS 예방을 위한 홍보전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짜져야 한다.

하나는 일반대중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종사자 등 전문인을 위한 것

● 일반대중

AIDS의 일반대중을 위한 홍보는 쉽고 구체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내용을 일반인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용어와 표현을 쉽게 할 필요가 있다.

홍보물은 다양화 할수록 좋다. 포스터, 팸플렛,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 등 인쇄물과 영상물은 물론 콘돔 등 성생활 관련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

AIDS의 홍보에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돼야 한다. 또한 대중매체를 겨냥한 홍보물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AIDS의 일반대중을 위한 홍보에서 교육을 빼 놓을 수 없다. AIDS의 일반대중을 위한 홍보나 교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AIDS의 홍보와 교육은 어려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특히 우리의 성도덕이 점점 더 개방화되어가는 추세에서 조기교육은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이제 성문제를 쉬쉬하고 덮어둔 단계는 지났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수준의 조기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문제를 공개적으로 보다 구체성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인간의 행동변화에는 「교육의 예방접종 효과」라는 것이 있다. 최근 미국의 대학에서 흡연연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흡연이 갖어다 주는 건강상의 장해에서 여러가지 나쁜 점을 구체적으로 교육한 덕분이란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어려서부터 실시한 금연교육이 커서 담배를 멀리하게 되는 예

방접종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AIDS의 문제도 조기교육을 통해 교육의 예방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AIDS의 조기교육은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건전한 성도덕 확립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 함께 실제로 실용화 할 수 있는 조치와 방법들도 강구돼야 한다. 콘돔 사용을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소기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거둘 수 없다. 콘돔을 마음에 부담없이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

AIDS의 일반대중을 위한 홍보는 대상별로 내용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대상은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임부, 여성, 남성, 서비스업 종사자, 해외여행자, 국내관광 외국인 등 세분화 할수록 좋다. 특히 AIDS 감염자가 많은 미국, 우간다, 탄자니아, 브라질, 프랑스, 자이레, 짐바브웨, 말라위, 이탈리아, 스페인, 쾨디디브와르, 멕시코, 케냐, 독일, 르완다, 캐나다, 잠비아, 영국을 위시해서 일본과 태국 등 국가를 여행한다든가 장기체류하게 될 때 이들을 위한 특별교육과 홍보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일본과 같은 나라는 AIDS 예방을 위해 기업이 나서고 있다.

파쓰시다전기산업(松下電器産業)과 파쓰시다전기공업(松下電工)은 지난 8월 중순부터 그룹사원 17만9천명을 대상으로 AIDS 검사를 무료로 해 주고 있으며 후지스(富士通)는 1987년부터 해외에 장기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하고 있다.

●의료종사자

AIDS의 의료종사자에 대한 홍보는 전문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HIV를 소멸시키거나 작용을 못하도록 불활성화 시키는 방법, HIV가 분열·증식하는 것을 막아 체내의 여러 장기로 침입하는 것을 저지시키는 방법, HIV가 갖고 있는 독소작용을 중화·해독시키는 방법에서 혈액을 다룰 때 지켜야 할 수칙들을 확실히 파악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홍보와 교육이다.

놀라운 일은 AIDS가 인류의 공포 대상이 되어 있고 빠른 속도로 번져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들은 말할 것 없고 의료종사자들마저도 약하다는 것이다. 일반대중은 AIDS가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IDS가 마약중독자나 동성연애자 또는 특수 직업여성과 남성에게 문제되는 것이지 일반인들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한보건협회가 1989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윤락여성의 50%이상이 AIDS의 전과경로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AIDS 감염 위험집단인 여성들이 이런데 일반인들의 AIDS에 대한 지식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AIDS는 이제 특수한 사람들에서만 문제가 되어 있지 않다. 북미와 남미,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건전한 성생활을 하는 가정에까지 AIDS가 침투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시기가 문제이지 우리나라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AIDS 예방을 위한 홍보는 대단히 중요한 일로 되어 있다.

정부차원에서 보사부가 AIDS 예방과 리대책의 일환으로 홍보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나 예산과 조직면에서 보잘것이 없다.

AIDS 관련 홍보자료가 요구를 따를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AIDS에 관해 문의하고 싶어도 창구가 없어 궁금증을 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AIDS 관련 홍보자료의 개방은 물론 홍보전략을 세워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조직이 필요하다.

AIDS 관련 자료개발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보건교육자료개발 차원에서 이를 주관할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AIDS 환자와 감염자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WHO와 미국정부는 종업원이 AIDS에 감염되어도 성적접촉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가는 것이 아니므로 건강이 유지되는 경우 하등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데서다.

국가의 이같은 정책은 AIDS 감염자가 숨어 버리는 일을 막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AIDS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아무리 잘해도 개개인이 이를 따라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이런면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인이 이를 따를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일은 중요하다.

한편 AIDS가 일반인들에게 실제보다 무서운 공포의 병으로 알려져 있는 것도 문제이다. AIDS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나친 공포는 정신건강을 위해서 뿐 아니라 이병의 예방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AIDS의 홍보는 올바른 정보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

AIDS와 결핵



권동원 / 결핵연구원 역학부장

서론

AIDS(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합병증 중에는 결핵 이외에도 많은 다른 감염성 질환 및 비감염성 질환이 있다. 그러나 "세계 AIDS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AIDS와 결핵과의 관계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려는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감염성 질환을 원인별로 분류해보면, 바이러스, 세균, 원충 및 운중질환이 있는데 이중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 AIDS의 원인 바이러스) 감염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질환이 바로 결핵이기 때문이다.

둘째, 결핵은 AIDS의 여러가지 다른